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박정현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각각 살펴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1차년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데이터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73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를 각각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고 증재하기 위하여 부와 모가 부부갈등을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권위적 양육행동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고,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부부갈등, 미디어기기 중독,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

I. 서론

PC와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의 빠른 보급과 정착은 현대인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편리하게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반대 측면으로는 과의존 및 중독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대변하듯, 다양한 신조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PC가 보급된 초창기의 ‘컴퓨터 중독’에서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인터넷에 몰두하는 상태를 뜻하는 ‘인터넷 증후군(internet syndrome)’과 ‘웹버홀리즘(webaholism)’,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는 증세인 ‘노모포비아(nomophobia)’, 스마트폰에만 몰입하여 좀비처럼 걷는 사람을 뜻하는 ‘스몸비

* 본 논문은 제1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20. 9. 25)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smombie) 등의 신조어에는 PC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PC나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역시 미디어 환경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동이 겪는 다양한 위기 중 하나로서(김미숙·양심영, 2007)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미디어패널을 활용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용시간 역시 2.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스마트폰 보유율 및 이용시간이 뚜렷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 시기 아동에게서 미디어기기에 과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발표한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한국정보화진흥원, 2020)’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아동의 경우 30.2%의 아동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한 김은설, 배운진과 김근진 외(2019)의 연구에서도 10세 아동의 31.7%에 해당하는 아동이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명당 1명의 아동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져 일상생활에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애효과로서 명확히 드러나는 미디어기기 사용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더욱이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중독 수준은 아동의 내재화 및 외재화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온다(안수빈·강보람·이강이, 2017; 최윤희·하은혜, 2019)는 점에서 아동의 PC나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자기조절력(김동일·우예영·임정은 외, 2020), 자아존중감(우수정, 2018), 공격성(백원대·서경현, 2019), 우울(김경호·최용호, 2018), 스트레스(이신숙·이영선, 2017) 등의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의 부부갈등(양명숙·조은주, 2011), 부모자녀 의사소통(김미현·곽현석, 2019),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이운경·이선희·김민정 외, 2020; 어주영·김형빈·이난희, 2019) 등의 가정환경 요인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는데, 아동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미디어기기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디어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미라·박세정, 2020). 또한, 가족체계의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온정적 양육태도가 방해되고(연은모·윤해옥·최효식, 2016),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게 됨(기성숙·이

지연, 2020)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한나·이미선, 2013)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예상되는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가족 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지만,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Davies & Cummings, 1994)는 점에서 더 잘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은 부모의 부부갈등에서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으로 짜증,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공격적, 회피적 대처 행동으로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안경희, 2007; 양명숙·조은주, 2011). 또한, 이정기(2015)는 질적 연구방법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부모님의 사이가 좋을수록 남아의 게임 장애 수치가 낮았으며(임한솔·정창원, 2021), 부모가 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면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었고(서보준, 2021), 아동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 의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이정기, 2015). 이처럼 아동이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갈등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기기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부부갈등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초점을 맞춰 부모의 부부갈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부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김지현, 김동훈과 조미라 외(2021)는 0세부터 초등 6학년까지의 부모의 부부갈등이 2점 안팎으로 유지됨을 보고하였으며, 연은모, 윤해옥과 최효식(2015)은 이전 시점의 부부갈등이 이후 시점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은정, 박성덕과 김경철(2014)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 변화 모형을 보였다. 또한, 자녀 출생 후 5년 동안의 부부갈등 변화 추이를 살펴본 연은모와 최효식(2020)의 연구에서는 잠재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부부갈등 수준 및 갈등 증가 패턴에 따라 ‘저수준 저변화’, ‘중수준 상향’, ‘상수준 무변화’ 등 세 개의 부부갈등 계층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상수준 무변화’ 집단의 경우 가장 높은 부부갈등 수준을 보이면서 변화가 없이 높은 갈등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부갈등 수준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부와 모가 부부갈등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대처 및 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의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때

커니즘에 관심을 가져왔는데(한영숙, 2019),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공격성 등 아동의 문제행동을 야기하며(박혜선·김형모, 2016; Alizadeh, Talib, Abdullah, et al., 2011), 학교생활 등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므로(박영진, 2019; 염운섭·최은실, 2018; 이경숙·조복희, 2007) 주목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양육행동을 유형화한 Baumrind에 따르면(Anderson & Sabatelli, 2016), 양육행동 유형을 온정과 통제의 두 축을 기준으로, 온정과 통제가 모두 높으면 권위적 양육행동, 온정은 낮지만 통제가 높으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온정은 높지만 통제가 낮으면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권위적 양육행동을 이상적인 양육행동 유형으로 보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의 양육행동 도구에서도 양육행동을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10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유의한 부정 상관을 보였으며,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권위적 양육행동은 PC나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기기 의존 수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미디어기기 사용에서 중독을 발생시킬 확률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김경민, 2021; 김은향, 2020; 민미희, 2020).

그 밖의 선행연구들도 양육행동과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애정적, 자율적, 수용적, 돌봄, 합리적 지도, 적극적 참여 등의 긍정적 양육을 하면 아동은 게임이나 채팅보다 과제해결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였으며, 반면 엄격한 태도, 체벌, 권위주의적 통제, 거부나 과보호, 과잉간섭, 지나치게 관대한 양육 등의 부정적 양육을 하면 인터넷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길어졌고,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졌다(김기숙·김경희, 2009; 김현지, 2004; 유계환, 2019; 조한익, 2011; Lou, Shih, Liu, et al., 2010; Rastegar & Dousti, 2016; Sun & Wilkinson, 2020). 또한, 부모가 수용-애정적이고 돌봄 수준이 높을 때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나 중독 수준이 낮았고, 거부-통제적이거나 과보호적일 때 과다 사용이나 중독 수준이 높았으며(류세인·조인숙, 2015; 어주영·김형빈·이난희, 2019; 임정아·김명식, 2018), 인터넷 중독 경향의 아동은 비중독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더 보호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하였다(Dogan, Bozgeyikli, & Bozdas, 2015).

한편, 유숙경, 김진숙과 박영진(2018)의 연구에서는 애정 및 적대, 자율 및 통제, 성취 및 비성취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전체를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복자와 박은아(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양육태도

는 스마트폰 의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정(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반면, 권미나와 임선아(2017)의 종단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는 높아졌으나, 방임이 스마트폰 의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두 변인 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양육행동은 매개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중 하나로(기쁘다, 2020), 빈곤과 문제행동의 관계(김진희·이상록, 2012), 일-양육 갈등과 집행기능 곤란의 관계(기쁘다, 2020), 부부관계와 문제행동의 관계(김한나·이미선, 2013) 등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 가정환경과 발달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민하영, 2010; 민하영·이영미, 2009; 이민식·오경자, 2000; 이형민, 2015)은 부부갈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온정적, 사회적 양육행동이 낮아지고, 통제적, 부정적 양육행동이 촉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발달 및 생애 전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육행동이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만을 규명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는 부와 모 중에서 한 명에게 지지받을 때보다 부와 모 모두에게 지지받을 때 더 긍정적으로 발달한다는 점(Ryan, Martin, & Brooks-Gunn, 2006)을 고려해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김종민·최은아, 2019; 김한나·이미선, 2013; 김형연·김민주, 2020; 이지영·이주연, 2020)은 대부분 모가 인식한 응답만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의 양육행동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가 인식한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부와 모의 응답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와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가정환경 측면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의 성별,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등은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하여 실태 및 예측 요인 분석(김종민·최은아, 2019; 김형지·정세훈,

2015; 우수정, 2018; 이신숙·이영선, 2017)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이자,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의빈·김진원, 2022; 한은숙·김성일, 2004)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이들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와 모의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할 때,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권위적 양육행동,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으며, 부와 모가 각자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검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성별 및 개인 내적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명확한 영향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권위적,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1차년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데이터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73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연령은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이 부 934명(79.6%), 모 741명(6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40세 미만이 부 171명(14.6%), 모 417명(35.5%), 만 50세 이상이 부 64명(5.5%), 모 12명(1.0%), 무응답이 부 4명(3%),

모 3명(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부 488명(41.6%), 모 443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부는 고등학교 졸업이 303명(25.8%),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242명(20.6%), 대학원 졸업이 137명(11.7%), 무응답이 3명(3%)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는 2-3년제 대학교 졸업이 338명(28.8%), 고등학교 졸업이 313명(26.7%), 대학원 졸업이 76명(6.5%), 무응답이 3명(3%)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 및 학업 상태는 취업/학업이 655명(55.8%), 미취업/미학업이 497명(42.4%), 무응답이 21명(1.8%)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607명(51.5%), 여아가 571명(48.4%)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124개월($SD=1.290$)이며, 월령의 범위는 121개월부터 129개월까지로 나타났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 아동 814명(69.4%),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아동 76명(6.5%), 고위험 사용자군 아동 283명(24.1%)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 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갈등 수준에 대해 부와 모가 각자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등의 총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부 .922, 모 .923으로 나타났다.

나. 매개변인: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Robinson, Mandlco와 Olsen 외(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 아동 패널 연구진이 번역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행동 수준에 대해 부와 모가 각자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등의 권위적 양육행동 27개 문항, '아이가 잘못했을 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20개 문항, '아이의 응석을 잘 받아준다.'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 15개 문항, 총 6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적 양육 행동,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허용적 양육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권위적 양육행동이 부 .916, 모 .903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부 .886, 모 .883로 나타났고, 허용적 양육행동이 부 .661, 모 .672으로 나타났다.

다. 종속변인: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 아동 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대해 모가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등의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846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인: 아동의 성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종민·최은아, 2019; 김형지·정세훈, 2015)를 고려하여 아동의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남아는 0, 여아는 1). 그리고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 중에서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총 5개 문항이고,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자아존중감이 .830, 스트레스는 .785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과 SPSS Process Macro v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고,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3.5의 Model 4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SPSS Process Macro v3.5의 model 4를 사용하여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각각 살펴보았다. 또한,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10,000회의 Bootstrapping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인지를 검정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와 모의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부의 평균은 2.043점, 모의 평균은 2.036점으로 나타나 척도의 점수범위(1 - 5점)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각각 살펴보면, 권위적 양육행동의 경우, 부의 평균은 3.672점, 모의 평균은 3.851점으로 나타나, 척도의 점수범위(1 - 5점)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보다 높았다.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경우, 부의 평균은 2.279점, 모의 평균은 2.344점으로 나타났으며, 허용적 양육행동의 경우, 부의 평균은 2.484점, 모의 평균은 2.382점으로 나타나 척도의 점수범위(1 - 5점)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보다 낮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평균은 1.633점으로 나타나 척도의 점수범위(1 - 4점)를 고려할 때 중간 수준보다 낮았다. 측정변수들의 왜도(-1.343 ~ 2.700)와 첨도(-.239 ~ .742)는 각각 |3|미만,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Kline, 2011).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부와 모의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와 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부: $r = .186$, 모: $r = .275$). 또한, 부와 모의 부부갈등은 자신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부: $r = -.361$, 모: $r = -.273$), 권위주의적(부: $r = .322$, 모: $r = .311$) 및 허용적 양육행동(부: $r = .314$, 모: $r = .290$)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부: $r = -.160$, 모: $r = -.311$), 권위주의적(부: $r = .198$, 모: $r = .345$) 및 허용적 양육행동(부: $r = .216$, 모: $r = .378$)과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N = 1,17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아동 성별)	1											
2(아동 자아존중감)	-.004	1										
3(아동 스트레스)	-.061*	-.374***	1									
4(부부부갈등)	-.021	-.056	.055	1								
5(모부부갈등)	-.006	-.080**	.092**	.662***	1							
6(부권위적)	.033	.082**	-.059*	-.361***	-.310***	1						
7(모권위적)	.003	.112***	-.105***	-.199***	-.273***	.283***	1					
8(부권위주의적)	-.109***	-.082**	.085**	.322**	.232**	-.472***	-.201***	1				
9(모권위주의적)	-.070*	-.057	.120***	.223***	.311***	-.180***	-.482***	.397***	1			
10(부허용적)	.050	-.106***	.074*	.314**	.210**	-.389***	-.216***	.466***	.301***	1		
11(모허용적)	-.007	-.119***	.127***	.177**	.290***	-.162***	-.485***	.281***	.570***	.381***	1	
12(미디어기기중독)	-.155***	-.136***	.144**	.186**	.275***	-.160***	-.311***	.198**	.345***	.216**	.378**	1
평균		3.499	2.039	2.043	2.036	3.672	3.851	2.279	2.344	2.484	2.382	1.633
표준편차		.461	.863	.788	.792	.441	.383	.503	.468	.370	.356	.409
왜도		-1.343	2.700	.587	.741	-.039	-.006	.184	.295	-.091	.167	.590
첨도		.742	.294	-.020	.369	.211	.121	-.067	-.133	.197	.507	-.239

주: 아동 성별(남아=0, 여아=1)

* $p < .05$, ** $p < .01$, *** $p < .001$.

1.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의 부부갈등이 부의 권위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B = -.200, t = -13.076, p < .001$), 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072, t = 4.649, p < .001$), 부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086, t = -3.081, p < .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의 부부갈등이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B = -.127, t = -9.328, p < .001$), 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101, t = 7.055, p < .001$),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260, t = -8.715, p < .001$)으로 나타났다.

〈표 2〉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한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173$)

Path	$B(\beta)$	se	t	95%CI		R	R^2	F
				LLCI	ULCI			
(아동 성별)	.022(.025)	.024	.918	-.025	.069			
(아동 자아존중감) → (부)권위적 양육행동	.054(.056)	.028	1.906	-.002	.109	.368	.135	45.655***
(아동 스트레스) → 양육행동	-.008(-.016)	.015	-5.555	-.038	.021			
(부)부부갈등	-.200(-.357)	.015	-13.076***	-.230	-.170			
(아동 성별)	-.118(-.144)	.023	-5.145***	-.163	-.073			
(아동 자아존중감) → (아)미디어 기기 중독	-.078(-.088)	.027	-2.910**	-.131	-.025	.297	.088	22.548***
(아동 스트레스) → 기기 중독	.042(.090)	.014	2.967**	.014	.071			
(부)부부갈등	.072(.139)	.016	4.649***	.042	.103			
(부)권위적	-.086(-.093)	.028	-3.081**	-.141	-.031			
Total effect	.090	.015	6.134***	.061	.118			
Direct effect	.072	.016	4.649***	.042	.103			
Indirect effect	.017	.006	-	.005	.029			
(아동 성별)	-.001(-.002)	.021	-.056	-.043	-.041			
(아동 자아존중감) → (모)권위적 양육행동	.059(.071)	.025	2.342*	.010	.108	.292	.085	27.261***
(아동 스트레스) → 양육행동	-.024(-.055)	.013	-1.803	-.051	.002			
(모)부부갈등	-.127(-.262)	.014	-9.328***	-.153	-.100			
(아동 성별)	-.122(-.150)	.022	-5.607***	-.165	-.080			
(아동 자아존중감) → (아)미디어 기기 중독	-.061(.069)	.026	-2.401*	-.112	-.011	.414	.172	48.363***
(아동 스트레스) → 기기 중독	.031(.066)	.014	2.281*	.004	.058			
(모)부부갈등	.101(.196)	.014	7.055***	.073	.129			
(모)권위적	-.260(-.243)	.030	-8.715***	-.318	-.201			
Total effect	.134	.014	9.395***	.106	.162			
Direct effect	.101	.014	7.055***	.073	.129			
Indirect effect	.033	.005	-	.023	.044			

주: 아동 성별(남아=0, 여아=1)

* $p < .05$, ** $p < .01$, *** $p < .001$.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의 부부갈등과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

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B = .090$, $CI [.061, .118]$), 직접효과($B = .072$, $CI [.042, .103]$), 간접효과($B = .017$, $CI [.005, .029]$)가 나타났으며, 모의 부부갈등과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B = .134$, $CI [.106, .162]$), 직접효과($B = .101$, $CI [.073, .129]$), 간접효과($B = .033$, $CI [.023, .044]$)가 나타났다.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를 각각 확인하였다.

2.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의 부부갈등이 부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B = .201$, $t = 11.441$, $p < .001$), 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069$, $t = 4.510$, $p < .001$), 부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103$, $t = 4.251$, $p < .0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의 부부갈등이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B = .179$, $t = 10.879$, $p < .001$), 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092$, $t = 6.385$, $p < .001$),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235$, $t = 9.592$, $p < .001$)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의 부부갈등과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B = .090$, $CI [.061, .118]$), 직접효과($B = .069$, $CI [.039, .099]$), 간접효과($B = .021$, $CI [.010, .032]$)가 나타났으며, 모의 부부갈등과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B = .134$, $CI [.106, .162]$), 직접효과($B = .092$, $CI [.064, .120]$), 간접효과($B = .042$, $CI [.031, .055]$)가 나타났다.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를 각각 확인하였다.

〈표 3〉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한
부과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173)

Path	$B(\beta)$	se	t	95%CI		R	R ²	F
				LLCI	ULCI			
(아동 성별)								
(아동 지아존중감) → (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101(-.100)	.028	-3.651***	-.156	-.047			
(아동 스트레스) → (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053(-.048)	.032	-1.624	-.116	.011	.346	.120	39.830***
(부)부부갈등	.026(.044)	.017	1.477	-.008	.060			
(부)부부갈등	.201(.315)	.018	11.441***	.167	.236			
(아동 성별)								
(아동 지아존중감) → (아) 미디어기기 중독	-.109(-.134)	.023	-4.767***	-.155	-.064			
(아동 스트레스) → (아) 미디어기기 중독	-.077(-.087)	.027	-2.892**	-.130	-.025	.308	.095	24.414***
(부)부부갈등	.041(.086)	.014	2.842**	.013	.069			
(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069(.133)	.015	4.510***	.039	.099			
(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	.103(.126)	.024	4.251***	.055	.150			
Total effect	.090	.015	6.134***	.061	.118			
Direct effect	.069	.015	4.510***	.039	.099			
Indirect effect	.021	.005	-	.010	.032			
(아동 성별)								
(아동 지아존중감) → (모)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059(-.067)	.026	-2.258*	-.109	-.008			
(아동 스트레스) → (모)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000(.000)	.030	.004	-.059	.060	.330	.109	35.675***
(모)부부갈등	.048(.089)	.016	2.963**	.016	.080			
(모)부부갈등	.179(.302)	.016	10.879***	.146	.211			
(아동 성별)								
(아동 지아존중감) → (아) 미디어기기 중독	-.108(-.133)	.022	-4.984***	-.151	-.066			
(아동 스트레스) → (아) 미디어기기 중독	-.077(-.086)	.025	-3.024**	-.126	-.027	.427	.182	52.006***
(모)부부갈등	.026(.055)	.014	1.923	-.001	.053			
(모)부부갈등	.092(.178)	.014	6.385***	.064	.120			
(모)권위주의적 양육행동	.235(.269)	.025	9.592***	.187	.283			
Total effect	.134	.014	9.395***	.106	.162			
Direct effect	.092	.014	6.385***	.064	.120			
Indirect effect	.042	.006	-	.031	.055			

주: 아동 성별(남아=0, 여아=1)

* $p < .05$, ** $p < .01$, *** $p < .001$.

3.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서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의 부부갈등이 부의 허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B = .145$, $t = 11.181$, $p < .001$), 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쳤고($B = .062, t = 4.095, p < .001$), 부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189, t = 5.844, p < .0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의 부부갈등이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B = .125, t = 9.929, p < .001$), 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 = .089, t = 6.335, p < .001$),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B = .359, t = 11.359, p < .001$)으로 나타났다.

〈표 4〉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한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173$)

Path	$B(\beta)$	se	t	95%CI		R	R^2	F
				LLCI	ULCI			
(아동 성별)	.043(.058)	.020	2.106*	.003	.083			
(아동 자아존중감) → (부)허용적 양육행동	-.061(-.076)	.024	-2.553*	-.108	-.014	.332	.111	36.289***
(아동 스트레스) → (부)부부갈등	.014(.032)	.013	1.086	-.011	.039			
(부)부부갈등	.145(.309)	.013	11.181***	.120	.171			
(아동성별)	-.128(-.157)	.023	-5.633***	-.173	-.083			
(아동 자아존중감) → (아)미디어 기기 중독	-.071(-.080)	.027	-2.674**	-.123	-.019	.327	.107	27.913***
(아동 스트레스) → (부)부부갈등	.041(.086)	.014	2.862**	.013	.068			
(부)부부갈등	.062(.119)	.015	4.095***	.032	.092			
(부)허용적	.189(.171)	.032	5.844***	.126	.253			
Total effect	.090	.015	6.134***	.061	.118			
Direct effect	.063	.015	4.095***	.032	.092			
Indirect effect	.028	.005	-	.018	.039			
(아동 성별)	-.001(-.001)	.020	-.039	-.040	.038			
(아동 자아존중감) → (모)허용적 양육행동	-.053(-.068)	.023	-2.271*	-.098	-.007	.313	.098	31.753***
(아동 스트레스) → (모)부부갈등	.031(.075)	.012	2.509*	.007	.055			
(모)부부갈등	.125(.277)	.013	9.929***	.100	.149			
(아동 성별)	-.122(-.149)	.021	-5.698***	-.164	-.080			
(아동 자아존중감) → (아)미디어 기기 중독	-.065(-.058)	.025	-2.307*	-.107	-.009	.453	.206	60.396***
(아동 스트레스) → (모)부부갈등	.026(.056)	.013	1.963	.000	.053			
(모)부부갈등	.089(.173)	.014	6.335***	.062	.117			
(모)허용적	.359(.312)	.031	11.359***	.297	.421			
Total effect	.134	.014	9.395***	.106	.162			
Direct effect	.089	.014	6.335***	.062	.117			
Indirect effect	.045	.006	-	.033	.057			

주: 아동 성별(남아=0, 여아=1)

* $p < .05$, ** $p < .01$, *** $p < .001$.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의 부부갈등과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B = .090$, $CI [.061, .118]$), 직접효과($B = .063$, $CI [.032, .092]$), 간접효과($B = .028$, $CI [.018, .039]$)가 나타났으며, 모의 부부갈등과 허용적 양육행동,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B = .134$, $CI [.106, .162]$), 직접효과($B = .089$, $CI [.062, .117]$), 간접효과($B = .045$, $CI [.033, .057]$)가 나타났다. 모든 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를 각각 확인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각각 규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각각 규명되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가 부부갈등을 더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노출될 확률이 낮았으며(김인숙·김도연, 2017), 부부의 애정표현이 많을수록 양육행동이 애정적이었고, 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 및 명확한 규칙의 설정 등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낮추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형연·김민주, 2020; 박보경·노지운, 2019; 민미희, 2020)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게임 등의 미디어기기 과몰입의 관계에서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이진향(2015)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불화나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격려와 칭찬, 규칙에 대한 이유 설명, 자유로운 의사 표현, 편안함 등의 권위적 양육행동 방법에 대해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각각 규명되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미비하나, 부부갈등의 빈도나 강도를 많이 지각한

수록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양명숙·조은주, 2011),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은 아동에게 거부나 제재 등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이어리·이강이, 2012),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고위험사용자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변인임(김종민·최은아, 2019)을 종합해볼 때, 부부갈등은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미디어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어 통제적,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문경임, 2017)를 고려할 때,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규명한 본 연구결과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오히려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동에게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노력과 부부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벌, 통제, 화, 무조건적 복종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 맞춤 교육 및 컨설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각각 규명되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갈등으로 아동이 두려움을 느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이 증가하며(안경희, 2007), 부부갈등이 방임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이어리·이강이, 2012), 방임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김경민, 2021; 우수정, 2013)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부의 갈등은 직접적으로 아동이 미디어기기에 몰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이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 방관하는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아동이 미디어기기 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뜻을 무조건 받아주고 허용해주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와 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은 다른 양육행동의 신뢰도에 비하여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김경민(2021)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는데, “아이를 위해 잘 짜여진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아이가 나의 기대와 상반되게 행동하였을 때에도 꾸짖거나 비판하는 것을 일단 보류한다”, “아이의 응석을 잘 받아준다”,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아이를 지적하고 가르친다” 등의 문항-전체 상관관계가 낮은 일부 문항의 영향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후후 문항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허용적 양육행동의 문

항의 적절성 및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및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유의한 직접 및 간접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는 양육행동이 스마트폰 의존 및 중독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로(권미나·임선아, 2017; 유숙경·김진숙·박영진, 2018; 정복자·박은아, 2016), 이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으로, 본 연구대상인 4학년 아동에 비해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발달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연구도구를 살펴보면, 권미나와 임선아(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문항 중 방임을 측정하는 4문항을 양육행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숙경, 김진숙과 박영진(2018)의 연구와 정복자와 박은아(2016)의 연구에서는 애정 및 적대, 자율 및 통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변인별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양극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에 상반된 결과는 다른 연구도구로 측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일부 추측해볼 수 있으며, 추후 동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한 한국아동패널의 12차년도 자료와 비교하고, 검토해봄으로써 해석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관계에 대해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부와 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정적, 이성적, 민주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권위적 양육행동을 더 감소시키며, 화를 내거나 통제 혹은 벌을 주고 억압하는 등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더 증가시키고, 비밀관적으로 훈육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의 허용적 양육행동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와 모가 인식한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검증함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서는 부와 모 양쪽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차원으로 접근하여 부부갈등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원만한 부부관계가 효과적이고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밝힘으로써 부부관계의 개선 및 권위적 양육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모의 인식에 의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모의 응답 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측정으로서 보강될 부분이 없는지 후속연구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에 대해 추후 위험군 분류에 따른 집단 분석이 이뤄진다면 심층적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예측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등의 세 가지 양육행동 중에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양육행동이 더 중요한 매개변인이며, 부나 모의 갈등 인식과 양육행동 중에서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규명한다면 보다 면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 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엄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예방 및 증재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의 합계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20)과 김은설, 배운진과 김근진 외(2019)의 연구와 유사한 비율로, 코로나 감염병 발생 전후 아동 청소년의 미디어 과다 이용 비율이 21% 증가한 것으로 보고한 최근 연구(정익중·이수진·강희주, 2020)를 고려할 때,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동의 미디어기기 과의존은 더 높은 비율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아동이 올바르게 미디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온·오프라인의 대면-비대면이 결합된 상호작용과 교육과정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미디어기기 사용의 긍-부정의 영향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과몰입 및 중독 등 미디어기기 사용의 부정적 측면의 관심뿐만 아니라 아동의 주요 환경 중 하나로 자리한 미디어 환경에 대해 긍정적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미디어기기의 활용이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아동이 미디어를 둘러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폭력 피해의 인식 및 대처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며, 미디어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연구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예방과 증재의 적극적인 개입

과 노력의 방안으로 가족체계의 두 축이 되는 가정환경 요인인 부부갈등과 양육행동을 검증함으로써 부모를 통해 아동이 경험하는 양육환경의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이 아동의 삶의 질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부와 모가 부부갈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이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미디어기기기에 의존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Clark(2011)도 부모의 의도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 및 완화할 수 있으며, 긍정적 가족의 역동에 초점을 맞춘 방법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아동기의 건강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애정 및 신뢰에 기반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기반을 통해 미디어기기 사용의 긍정적 기제가 나타나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중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부와 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존 가트먼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Anderson & Sabatelli, 2016)를 고려하여 부와 모의 특성 및 요구 파악의 선행과 함께 가정 내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부와 모가 스스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 등의 세 차원으로 파악하였는데, 척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위적 양육행동은 애정 및 관여, 이성 및 유도, 민주적 관계, 친절 및 편안함 등의 하위영역,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화내기, 처벌, 비이성적 별주기 전략, 지시 등의 하위영역, 허용적 양육행동은 일관성의 부족, 방관, 확산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와 모 모두의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각 하위영역들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실제 가정에서의 양육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본다면,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대상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합한 교육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부모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통해 부모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바람직한 미디어기기 사용을 돕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의 국가기관 및 NGO 기관을 통해 무상으로 양질의 다양한 부

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부모교육 사각 지대의 양육자들이 존재하므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권미나·임선아(2017).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휴대전화의존 간의 관계에서 학습태도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5(2), 143-161.
- 기쁘다(2020). 취업모의 우울과 일-양육 갈등이 아동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4), 177-197.
- 기성숙·이지연(2020). 취업모의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가 부정적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상담, 10, 21-36.
- 김경민(2021). 부모의 허용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기기 중독을 매개로. 육아정책연구, 15(2), 75-96.
- 김경호·최용호(2018). 초등학생의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3(11), 211-218.
- 김기숙·김경희(2009). 초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아동간호학회지, 15(1), 24-33.
- 김동일·우예영·임정은·이수빈·송주석·최수미(2020).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5), 315-338.
- 김미숙·양심영(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2007(6), 5-20.
- 김미현·곽현석(2019). 초등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주관적 행복감, 게임중독 간의 구조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371-389.
- 김은설·배윤진·김근진·조혜주·김혜진(2019).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9.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박성덕·김경철(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 육아정책연구, 8(1), 129-151.
- 김은향(2020).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아동 스마트미디어기기 의존, 집행기능 곤란, 화용언어능력의 구조적 관계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7), 1037-1059.
- 김인숙·김도연(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아시아교육연구, 18(2), 221-244.
- 김종민·최은아(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운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희·이상록(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김한나·이미선(2013).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11(3), 73-92.
- 김현지(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들과 초등학교 아동의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61-874.
- 김형연·김민주(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 기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1), 105-121.
- 김형지·정세훈(2015).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류세인·조인숙(2015).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6180-6189.
- 문경임(2017).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부모 관련 변인.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미희(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 민하영(2010).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유아의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 관계에서 애정-거부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12.
- 민하영·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보경·노지운(2019).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3), 87-103.
- 박영진(2019). 개인, 가족, 사회변인이 초등학교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설명력. 아동교육, 28(1), 30-57.
- 박혜선·김형모(2016).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498-512.
- 백원대·서경현(2019). 초기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와 온라인 게임중독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3), 225-244.
- 서보준(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837-851.
- 안경희(2007). 초등학교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갈등 변인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빈·강보람·이강이(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양명숙·조은주(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1-13.
- 여주영·김형빈·이난희(2019).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초등학생 고학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4), 211-228.
-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5).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93, 1-29
- 연은모·윤해옥·최효식(2016).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태도 간 관계: APIM 모형의 적용.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28.
- 연은모·최효식(2020).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 변화 양상에 따른 우울 및 자녀의 학교준비도,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5), 344-352.
- 염윤섭·최은실(2018).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와 자기통제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2), 297-307.
- 우수정(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 우수정(2018).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771-786.
- 유계환(2019).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부모의 과잉간섭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습무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383-391.
- 유숙경·김진숙·박영진(2018). 부모양육태도,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7(2), 145-161.
- 이경숙·조복희(2007).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0(2), 47-57.
- 이미라·박세정(2020). 아동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 자율성지지,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행동간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5), 169-191.
- 이민식·오경자(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임상, 19(4), 727-745.
- 이신숙·이영선(2017).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7), 627-634.
- 이어리·이강이(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스마트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운경·이선희·김민정·김수지(2020). 취업모의 일-가정갈등이 학령 초기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양육행동의 순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47-161.

- 이의빈·김진원(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29-158.
- 이정기(2015). 부부갈등 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이주연(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이 미디어 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8(2), 101-118.
- 이진향(2015). 중학생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자녀 게임과몰입과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2(1), 169-182.
- 이형민(2015).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6(2), 119-136.
- 임정아·김명식(2018).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395-405.
- 임한솔·정창원(2021). 초등학생 게임 이용 장애의 부모 간 관계의 역할: 교내 및 가정 내 관계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21(4), 59-7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 정복자·박은아(2016).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연구, 1, 53-73.
- 정익중·이수진·강희주(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정현숙(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한익(2011).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이용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4), 269-287.
- 최윤희·하은혜(2019). 아동의 가족 상호작용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문제행동 간 구조적 관계: 미디어기기 중독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7(2), 1-18.
-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한영숙(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40(4), 109-122.
- 한은숙·김성일(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구적 실패내성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0(2), 177-202.
- Alizadeh, S., Talib, M. B. A., Abdullah, R., & Mansor, M. (201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ian Social Science, 7(12), 195-200.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2016). 다세대 발달관점의 가족관계(정문자·정현숙·정혜정·전영주·정유진 공역). 서울: 학지사. (2011년 원저 5판 발간).

- Clark, L. S.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4), 323-343.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ogan, H., Bozgeyikli, H., & Bozdas, C. (2015). Perceived parenting styles as predictor of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and Science, 1*(2), 167-17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 Lou, S. J., Shih, R. C., Liu, H. T., Guo, Y. C., & Tseng, K. H. (2010). The influences of the sixth graders' parents' Internet literacy and parenting style on Internet parenting.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9*(4), 173-184.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Rastegar, F., & Dousti, Y. (2016). Predicted internet addiction students based on their parenting style. *Journal of Psychology & Behavioral Studies, 4*(4), 115-21.
- Ryan, R., Martin, A., & Brooks-Gunn, J. (2006). Is one good parent good enough? Patterns of mother and father parenting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at 24 and 36 month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2), 211-228.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819-83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n, Y., & Wilkinson, J. S. (2020). Parenting style, personality trai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model of prediction of internet addi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4*, 2163-2185.

-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7월 15일 / 게재 승인 8월 16일
- 교신저자: 박정현,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jhpark.jamie@gmail.com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Jung-hyun, Park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Data on 1,179 parents drawn from the 11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was confirmed. Seco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was confirmed. Thir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was confirm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rents should recognize and manage marital conflicts to prevent and mediate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parental education programs that can learn and practice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improve authoritarian or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Key words: marital conflict, media devices addiction, 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